코로나 기원 조사 재개하나

WHO 이번주까지 전문가 선발
미국 압박 실험실 유출 등 검사
중국 자국 내 활동 허용 미지수

세계보건기구(WHO)가 중단 상태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조사 재개를 추진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새 조사팀은 실험실 안전과 바이오보안 전문가, 유전학자, 바이러스의 '종간 감염'에 정통한 동물 질병 전문가 등 20여명의 과학자로 꾸려질 예정이다.

중국과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코로나19 기원에 관한 새 증거를 찾을 조사팀 모집에 수백명이 지원했고, 이번주 말까지 선발 절차가 끝날 예정이다.

새 조사팀 구성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WHO에 코로나19 기원 조사의 재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내려진 결정이다.

앤서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공개적 또는 사적으로 조사 재개를 요구하면서 최소 1명 이상의 미국인 전문가를 포함시킬 것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WHO의 1차 조사팀 10명은 전원 비미국 출신 전문가들로,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이들은 중국 당국이 혈액은행 샘플을 분석하고 초기 감염의심 사례를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임 도전을 공식화한 테워드로스 총장으로서는 누구보다도 미국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WSJ은 분석했다.

이번에 꾸려지는 2기 조사팀은 코로나19를 일으킨 바이러스의 실험실 유출 여부에 관한 조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WHO는 신종 병원균의 기원에 관한 과학자문그룹을 영구적인 패널로 출범시키고, 이 그룹의 임무 중 하나로 현재 진행중인 코로나19 대유행에 관한 조사를 맡긴다는 복안이다.

실험실 유출설을 강하게 부인하는 중국이 WHO 조사팀의 자국 내 활동을 허용할지는 미지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중국은 과학에 근거한 기원 추적을 계속 지지하고 관여하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정치공작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오히려 중국은 새 조사팀이 자국이 아닌 이탈리아나 미국 메릴랜드주 포트데트릭의 미군 바이오연구 실험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은 포트데트릭 조사 요구에 반대하고 있다고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WSJ에 전했다.

WHO 관계자는 "최초 발병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 대한 접근과 데이터가 새 조사팀의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리오그란데강 건너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 /연합뉴스

텍사스 난민촌은 사라졌지만…

아이티 이민자 위기 여전
중남미서 미국 향해 북상
추방자 "다시 시도할 것"

미국 텍사스주 델리오의 국경 다리 부근을 가득 메웠던 난민촌은 사라졌지만, 수많은 아이티 난민으로 인한 곳곳의 국경 위기는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수천 명의 아이티인들이 미국을 향해 위험한 정글을 건너고 있으며, 고국으로 추방된 이들도 곧바로 다시 탈출을 꿈꾸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26일(현지시간) 남부 국경 지역에서 아이티 수도 포르토프랭스까지 송환 항공편을 운항한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귀국을 희망하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멕시코 남북부 국경에 모여 있는 아이티인 중 얼마나 미국행을 단념하고 귀국 비행기에 오를지는 불확실하다.

이들 중 일부는 미국 땅을 한번 밟았다가 당국의 추방을 피해 다시 멕시코로 후퇴한 이들이다.

최근 한꺼번에 몰린 아이티 이민자들로 델리오에 생긴 거대한 임시 난민촌은 아이티 이민자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미 국경순찰대가 말을 타고 채찍으로 이민자들을 쫓는 장면까지 공개돼 논란을 키운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재빨리 델리오의 이민자들을 해산시켰다.

미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최근 2주간 델리오로 들어온 3만 명가량의 이민자 중 2,000명가량이 아이티로 추방됐고, 8,000여 명은 멕시코로 후퇴했다. 1만 2,000명은 미국에 남아 망명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고, 나머지는 이민자 수용시설 등에서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아이티인은 대부분 몇 년 전 고국을 떠난 이들이다.

2010년 대지진 이후 많은 아이티인이 일자리를 찾아 브라질이나 칠레로 이민했다.

남미 국가에서 일자리가 줄고 이민 정책이 엄격해지자 아이티인들은 보다 포용적인 바이든 정부의 이민정책에 기대를 품고 왓츠앱 메신저 등으로 상황을 공유하며 한꺼번에 미국행에 나선 것이다.

본국 추방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목격했지만 중남미에서 아이티인들의 북상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콜롬비아 국경 네코클리엔 '다리엔 갭'으로 불리는 험한 정글을 통해 파나마로 건너가려는 이민자 1만6,000명이 대기 중이다. 대부분 아이티인이다.

정글을 통과한 후 중미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아이티인들도 수천 명이며, 과테말라에서 들어와 멕시코 남부 국경에 발이 묶인 아이티인들도 많다.

일단 멕시코에서 일자리를 구해 머물려는 이들도 있지만 고국을 떠난 아이티인 대다수의 최종 목적지는 미국이다.

아이티로 추방된 이들도 고국에서 오래 머물 생각은 없다. 인구의 60%가 빈곤층인 아이티는 최근 더욱 치안이 악화한 가운데 대통령 암살과 대지진까지 이어져 혼란 상태다.

남편, 두 살 딸과 함께 포르토프랭스로 추방된 델타 데레옹은 AP통신에 "여기에 오게 될 줄은 몰랐다"며 "곧 다시 떠나고 싶다. 내가 가장 원치 않는 일은 내 딸이 여기서 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리엘 앙리 아이티 총리는 지난 25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인간은, 아이를 가진 부모는 언제나 빈곤과 갈등을 피해 탈출할 것"이라며 "지구상에 부유한 지역과 빈곤한 지역이 공존하는 한 이주는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일본 언론, 위안부 문제 '금기'"

니시지마 감독 '표적'
부산국제영화제 출품
우익세력 비열함 폭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도한 언론인에 대한 일본 우익 세력의 비열한 공격 행태를 폭로한 다큐멘터리 '표적'을 만든 니시지마 신지 감독(사진)은 표현의 자유가 말살당할 위기라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표적'이 부산국제영화제에 출품된 것을 계기로 니시지마 감독은 "저널리스트가 국가권력을 뒷배로 삼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한 문제를 통해 일본 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표적'의 제작은 순탄하지 않았다.

민영 방송사 디렉터(프로듀서에 해당)였던 니시지마는 애초에는 '우에무라 때리기'를 주제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했으나 회사가 허락하지 않았고, 정년 후 부여되는 5년간의 고용 연장 기회를 포기하고 독자 제작의 길을 택했다.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KB마이니치방송이 우에무라 관련 프로그램 제작을허용하지 않았던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보도를 꺼리는 일본 언론의 전반적인분위기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에는 위안부 문제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규칙이라도 있는 것처럼 일본 언론들은 스스로 눈치 보기를 하는 것이라고 니시지마는 진단했다.

그는 이런 태도가 "위안부 문제를 다룸으로써 정권이나 정권을 지지하는 우익 세력으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기 위한 방어책"이라고 비판했다.

니시지마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책임을 부인하는 원인으로 역사를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것과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을 꼽았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일본 언론 사이에서 "금기가 됐다"며 "일본 미디어가 본래의 역할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스위스 동성결혼 합법화
국민투표서 64.1% 찬성

스위스가 국민투표를 거쳐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AP 통신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전국적으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4.1%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이른바 '모두를 위한 결혼'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26개 모든 주에서 찬성률이 과반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동성 커플도 합법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아이를 양육할 권리를 갖는 등 이성 부부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전망이다.

발효 시점은 정부가 별도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앞서 스위스 의회가 작년 말 해당 법안을 가결하자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5만 명의 서명을 받아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후 스위스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돼왔다.

찬성론자들은 동성 커플도 합법적인 부부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론자들은 전통적인 가족의 가치를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시·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i1000@hanmail.net